日고야산, 코로나 종식 특별기도

NHK 등 5월 5일 보도
코로나 희생자 추모행사

코보대사 유지 계승 일환
밀교 의식으로 기도 봉행
슈쿠보 급감에 재정 영향

박영빈 객원기자


고야산 금당에서 요잡의례를 하며 반야경을 독송하는 스님들. 사진출처=마이니치 신문

세계문화유산이자 일본불교 성지인 고야산(高野山)에서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는 특별법회가 봉행됐다. 법회는 1년이 넘게 이어온 코로나19 속에 희생된 이들을 천도하고 확산의 조기종식을 기원했다. 5월 5일 일본의 '마이니치 신문', 'NHK' 등은 고야산 소식을 특별보도했다.

지난 3일 고야산 총본당인 금당에서 열린 '코로나 재난 조기종식 기원, 희생자 추모법회'는 산내 각 사찰을 대표하는 30인의 대중 스님들이 모였다. 이번 특별기도회는 종조 코보대사의 원적기념일(음 3월 21일) 법회에 맞춰 종조 유지를 이어가는 의미에서 진행됐다.

고야산 측은 "종조인 코보대사(弘法大師)께서도 역병이 돌 때 대중들과 함께 종식을 기원하고, 희생자들을 천도하셨다. 그 전례를 따라 특별기도를 봉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야산 진언종 소에다 류쇼 종무총장 스님은 "고야산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관계자분을 기도로 응원하고자 한다. 동시에 돌아가신 전 세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겠다"고 기도 내용을 전했다.

특별법회서는 캇사이 코우기 진언종 관장이 법주를 맡아 금당에 마련된 단상에서 밀교의식으로 기도를 봉행했다. 이에 따라 대중스님들은 〈이취반야경〉 등의 경을 독송하며 법당 안에서 요잡의례를 봉행했다. 기도 중 발원문에는 "역병이 속히 물러나고, 명을 달리한 이들이 안식을 얻길 바란다"는 문구가 낭독됐다.

법회에 참석한 한 가족은 "이런 시기에 고야산에서 참배하고, 또 스님들이 특별히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보니 응원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여성은 "모두가 힘든 시기다. 모두에게 빨리 안정된 생활이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문화유산이자 관광지로도 유명한 고야산 역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다. 고야산 류쇼 스님은 "코로나19로 긴급사태가 선언된 2020년 봄 이래로 산내 상황이 급변했다"고 말했다.

고야산 측은 긴급사태가 발령됨과 동시에 산문을 폐쇄하고 모든 사찰과 시설의 방문 및 관람을 중지했다. 자연스럽게 참배객과 관광객들이 급감하면서 연중 붐비던 고야산에 적막감이 돌고 있다.

특히 고야산의 명물이자 일본식 템플스테이로 불리는 '슈쿠보(宿坊)'가 숙박객을 받지 않고 폐쇄되면서 재정상황도 악화됐다.

한 슈쿠보 관계자는 "슈쿠보의 수입은 사찰 재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숙박객이 오지 않으면서 사찰의 재정이 타격을 받아 근심이 크다"고 털어놨다.

고야산 슈쿠보 연합회 측은 지난해 슈쿠보 방문객 중 내국인 23%, 외국인 93%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슈쿠보 재정뿐만 아니라 슈쿠보와 연결된 식료품점, 기념품점 등의 산내 상권들도 함께 타격을 받았다.

고야산 측은 "올림픽과 더불어, 고야산 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전 등 행사를 예정했으나 확산이 격화되며 모든 일정이 요원해졌다"고 어려운 사정을 밝혔다.

泰불교계, 부처님 디저트 판매 화제

부처님 모독 논란에 과잉반응 지적도


논란이 일고있는 호신불모양 과자들. 사진출처=방콕포스트

태국 중부도시 사뭇 송크람에 소재한 제과점에서 태국 전통 호신불인 '프라쿠르안' 모양케이크와 과자를 판매해 화제다. 부처님을 모독했다는 논란이 일며 불교문화 상품에 대한 과잉반응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5월 7일 태국의 '방콕 포스트'는 이 호신불 디저트에 대해 소개했다. 사뭇 송크람의 한 제과점은 SNS를 통해 호신불인 '프라쿠르안' 모양의 전통 코코넛 케이크와 과자들을 소개했다.

프라쿠르안은 소형 불상이나 불탑, 혹은 고승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호신불로 보통 목에 걸거나 차량 내 소지하는 용도로 쓰인다. 태국에서 프라쿠르안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프라쿠르안을 거래하는 시장이 별도로 존재한다.

제과점 측은 새로 출시한 과자들을 소개하면서 "프라쿠르안 모양의 디저트을 먹으면 프라쿠르안을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몸 안에서 함께할 수 있다"고 제작동기를 밝혔다.

SNS에서 이 제품이 소개되자 사뭇 송크람의 불교문화사무국은 디저트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언급했다.

사무국 측은 "식품에 부처님의 이미지를 넣어 홍보하는 경우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먹는 형태는 없었다"며 "가령 제품이 손상되거나 부패할 경우 쓰레기로 버리거나 동물이 먹게 된다. 호신불은 기본적으로 예경의 대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SNS에서는 "부처님 형상을 본딴 음식은 불교계서 이미 다양하게 있다"고 의견이 올라왔다. 또 다른 네티즌은 "반대로 동물이 이 과자를 먹고 가피로 다음생에 삼악도를 벗어나면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한 네티즌은 "부처님 모습을 한 과자를 먹으며 맛과 향도 무상함을 깨달을 수 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하신 부처님 가르침을 다시 되새긴다면 불법을 전하는 음식이 될 것"이라고 지지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美불교계, 증오사회 '치유' 나서다

4일 LA히가시 혼간지서
'인종차별 반대' 법회

미국 전역서 불교도 운집
증오범죄 경각 주는 취지
애틀란타 피해자 49재도


'나무삼보' 마스크를 쓰고 기원하는 미국불교도들. 사진출처=LA타임즈

"무지(無知)가 있을 때,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탐욕이 있을 때, 우리는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증오가 있을 때, 우리는 사랑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미국 스님들이 '불법승에 귀의한다'는 뜻의 '나무삼보'(南無三寶)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한 불교 사원에 들어섰다. 가사를 갖춰 입고, 삭발을 한 머리는 모습은 같았으나 태어난 나라도, 자라 온 환경도 모두 다른 이들이었다.

미국 각지로부터 모인 불교도들이 미국 사회를 향해 '증오범죄를 멈춰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5월 8일(현지시간) 미국언론 '로스앤젤레스 타임즈(LA타임즈)'는 "그들(스님들)은 4일 리틀도쿄(Little Tokyo) 히가시 혼간지(Higashi Honganji) 불교사원에서 열린 '인종차별 반대' 행사서 불교 전통과 아시아 문화 및 언어의 다양성을 표출했다"며 "약 2500년간 이어온 불교 역사에서 유래 없는 일로, '인종차별 반대'라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세계 각지의 불교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리틀도쿄로부터 온 일본계 미국인, 웨스트민스터로부터 온 베트남인, LA와 가든그로브 출신의 한국인, 롱비치 출신의 베트남인, 할리우드 출신의 태국인, 산타아나 출신의 캄보디아인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으며,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미국 불교도들도 있었다.

이날 행사를 주최한 USC종교학교 둔칸 규켄 윌리엄스 스님은 "공동체를 통해 '인종차별 반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미국 불교계 구성원이 한 자리에 모였다"며 "이는 '다양성'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4개 불교계가 모인 캘리포니아에서만 성사될 수 있는 일"이라고 소개했다.

일본 조동종 소속이기도 한 둔칸 규켄 윌리엄스 스님은 "수백 세기 동안 이처럼 다양한 전통과 계통, 종파들이 모인 유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증오범죄에 대한 반대와 함께 미국 사회에 불교사상을 담은 메시지를 던져 증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행사를 기획했다.

이 같은 일환으로 지난 2월 기물파손과 방화 등 증오범죄 테러를 당한 히가시 혼간지는 증오범죄 규탄성명 대신, 증오범죄인 애틀란타 총격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49재를 열기도 했다.

윌리엄스 스님은 "증오심에 가득찬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선량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싶다"며 "증오범죄에 대한 분노 대신 증오범죄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데 일조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3월 16일 애틀란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22)은 5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美불교사원 연쇄 절도범 잡혀

여성 5명 · 남성 1명 구성된 범죄단 체포


사진출처=노스웨스트 아칸시스

미국 아칸소주 로저스(Rogers)에 위치한 베트남 사찰에서 강도 · 무단침입 · 폭행 등의 혐의로 범죄단이 경찰에 체포됐다.

아사칸주 지역언론 '노스웨스트 아칸사스'(Northwest Arkansas)는 4월 20일 6명의 루마니아인들이 경찰에 체포됐다고 밝혔다.

벤튼(Benton) 카운티 셰리프 오피스(Sheriff's Office) 발표에 따르면, 루마니아 여성 2명이 4월 18일 사원을 찾아 코로나19로 인한 가족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고 이에 사원 측은 베트남 의식을 진행했다.

의식 중 여성 1명이 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요구했고, 또 다른 여성은 사찰 관계자의 주의를 딴 곳으로 돌리려 했다. 의식 중 자리를 비우는 이들을 수상케 여긴 사찰 관계자가 이들에게 퇴거를 요청하자, 이들은 매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틀 후 이들 여성 2명을 포함한 여성 5명과 남성 1명이 사원에 무단 침입했다. 당시 사원에는 관계자 1명만 머무르고 있었다. 이들은 강제로 문을 부수고 진입을 시도했다. 사원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나타나자 이들은 차량으로 도주를 시도했으며, 역주행 끝에 경찰에 체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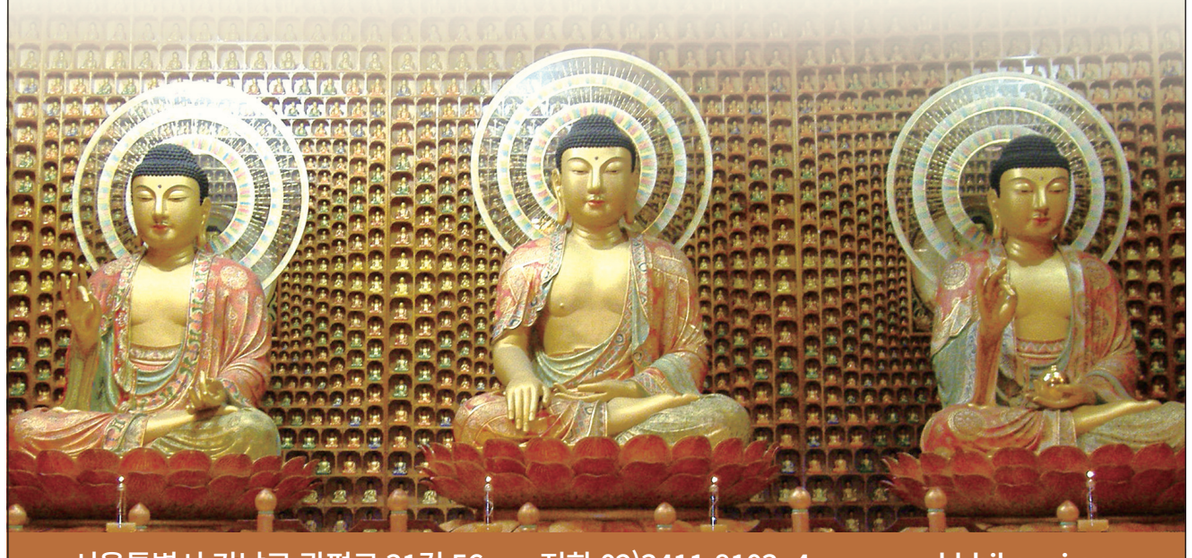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그동안 불교사원을 대상으로 강도 행위를 벌여왔다는 것을 확인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소통하고 실천하는
전국비구니회가 되겠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본각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1길 56 전화 02)3411-8103~4 www.kbhiksuni.org

대한불교 조계종 삼각산화계사

불기2565(2021)년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조 실 송원 설정
회 주 성광
주 지 수암
국제선원 정진대중

사부대중일동

백 중	입재 : 7월 05일 (월요일) 회향 : 8월 22일 (일요일)
불교대학	화요일 ~ 일요일 문의 : 02-997-6469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수유동) | 전화 02)902-2663 팩스 02)990-1885 | www.hwagyesa.org